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비대면 판매 인기

'고향 방문 자제' 속 특판 매출 15억7100만원 기록

설 대비 400% 증가...명품 농수산물 소포장 인기

추석명절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하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남 해남군의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추석맞이 특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남미소가 20여 일만인 지난 17일까지 15억71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설명절 특판행사 전체 매출 금액 3억1000만원보다 400% 이상 증가

한 수치로, 청정해남 건강한 농수산물의 추석선물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실제 해남군은 지금껏 코로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땅끝의 이미지가 높아진 것은 물론 해남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농수산물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해남에서 생산·가공된 명품 농수산물을 소포장으로 구성된 명품 선물세트가 가장 인기로 벌써

2억3000만원 어치가 판매됐다.

10종으로 구성된 3만5000원, 12종 세트 5만원 등 2종류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해남의 명품 농수산물을 골고루 맛볼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건강'을 선물하고자 하는 소비자 맞춤형 선물을 다양하게 준비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홍삼진액, 헛개나무 열매즙, 흑염소진액, 황진진액과 명품 김세트, 시그니처 수제 햄세트, 맥문동 야관문 담차세트, 명품한우세트, 돼지갈비세트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 국산 바나나와 해남특산물인 무화과, 고구마 등 제철 농산물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

이고 있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해남미소에서는 특판행사와 함께 소비자 이벤트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협합시다'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쌀, 돼지고기, 고구마, 바나나, 무화과, 잡곡, 마늘 등 1차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20% 농협쿠폰을 지급한다.

해남군 농수산물은 해남미소는 물론 SSG닷컴, 신세계몰, 이마트몰, 카카오쇼핑하기에서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해남미소는 직영 8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총매출 50억원을 달성하며, 해남 농수특산물 온라인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남미소를 비롯한 비대면 판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취재본부)

장흥군, '호도랑호두랑작목회' 창립총회 가져



소득 증대·호두축제 발전

장흥군 장평면 '호도랑호두랑작목회'는 지난 16일 장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호두재배농가 등 19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초대회장으로 임자영(장평면 병동마을) 회장이 선출

됐다.

작목회는 장평면의 대표축제 품목이자 지역특화 산림소득작목인 호두의 품질향상과 공동출하, 판매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장평명품 호두축제의 주체로서 축제 발전을 이끌어 간다.

임자영 회장은 "노리게호도와 식용

호두 재배농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 호두를 생산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병욱 장평면장은 "호두재배 농가들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면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지역을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가정취재본부



부동산특조법 T/F팀 창구 신설

진도군, 2022년 8월 4일까지...2년간 한시적 시행

진도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특조법 T/F팀 창구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 건축물과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에 설치된 부동산특조법 T/F팀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

하면 보증취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진도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법무사 1명 이상의 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 관련 과징금(과태료), 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많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강진군,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선정

국비 2억9천6백만 원 확보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9천6백만 원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IOT(사물인터넷) 등 상권 서비

스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강진군은 8월 서류심사와 9월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복합형상가 및 디지털사이니지 2개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복합형상가사업은 상가 특성에 맞는 스마트미러, 스마트 메뉴보드, 키오스크, 서빙·조리 로봇 등 소상공인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기술과 비대면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으로 상점별 위치 및 취급 제품, 주요 관광지 등 종합 정보 안내 시설

물을 읍내에 함께 설치하게 된다.

이승욱 군수는 "코로나19로 소비 패턴과 유통환경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스마트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상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연말 김장나눔 행사 앞두고 배추 파종

장흥군, 김장 담아 경로당·생활 어려운 이웃들 전달 예정

장흥군 용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성호, 공동위원장 이시영)는 18일 용산면 계산리 1000㎡ 규모의 밭에 배추 모종을 심었다고 밝혔다.

이날 파종한 배추는 12월 초 수확한

후 지역사회단체들과 김장을 담아 경로당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배추 파종 행사에는 용산면 새마을부녀회, 노인일자리 어르신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합심해 밭 갈기, 비료 뿌리기, 비닐 씌우기 등 사전 작업과 당일 배추모종 심기 행사를 추진했다.

40여 명의 참여자들은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배추 2000포기를 심었다.

이시영 용산면장은 "자발적 참여에



감사드리고, 배추파종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해준 용산농협에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가정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